

# 이슈

2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제3168호

## 내가 왜 떴게?

### 곰탕 끓여놓고 출장가는 남편



백중원

●소유진, 곰탕: 큼직한 들통에 곰탕을 끓이고 있는 남자. 놀랍게도 백중원이다. 아내 소유진은 “남편이 주방에 나와 곰탕을 끓이기 시작한다. 어디 또 출장가는 거야?”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곰

탕 끓이는 아내를 남편이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노부부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패러디가 재밌다. 가족을 위해 조용히 곰탕을 끓이는 가장. 과연 곰탕만큼이나 진국이십니까.



이효리

### 내로남불

●이효리, 이혼 언급: “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 이효리가 방송에서 이혼에 대해 언급했다. 남편 이상준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면 이혼하겠다는 것. “미워하지는 않지만 같이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이효리 자신이 바람을 피울 경우 “난 사랑에 잘 빠지고 또 금방 잘 나오니까 기다려 달라”고 해 이상준을 발끈하게 만들었다. 웃자고 한 소리인데, 정말 웃겼습니다! ㅋㅋ

### 누가 누굴 바른 거야



강다니엘

●강다니엘, 지방시: 강다니엘이 프랑스 지방시 뷰티 브랜드의 공식 모델로 발탁됐다. 공개된 화보 속에서 강다니엘은 지방시 뷰티의 대표 제품인 ‘르 루즈’로 연출한 메이크업을 선보였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윽한 시선과 미소를 머금은 입술이 눈길을 ‘확’ 잡아끈다. 이쯤 되면 강다니엘이 지방시를 바른 게 아니라, 지방시가 강다니엘을 바른 수준.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자신만의 콘텐츠로 방송가서 가요계까지 꾸준히 영역 확장

# ‘콘텐츠 기획자’ 송은이 전성시대



송은이가 콘텐츠 기획자로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사진은 8월 ‘송은이 김숙의 영화보장’ 제작발표회 모습.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채널A ‘송은이 김숙의 영화보장’ 편안한 분위기의 영화 프로 어필 좋은 기획력·센스 방송가서 정평

‘안 본 눈 삽니다’ 무비 연출 화제 ‘앞으로 보여줄 것 많아’ 자신감

개그우먼 송은이가 ‘콘텐츠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직접 기획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방송가에서 가요계까지 활동 영역도 넓혔다. 기존의 소재와 포맷을 넘어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플랫폼을 바탕으로 대중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채널A 예능프로그램 ‘송은이 김숙의 영화보장’은 송은이가 기획한 것으로 매회 한 영화를 선정해 각종 관련 정보를 ‘수다’로 풀어낸다. 이는 송은이가 2015년 시작한 팟캐스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의 연장선으로 단순히 영화와 관련된 정보를 전

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함께 전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기획자답게 장항준 감독을 비롯한 모든 출연진을 직접 섭외하는 등 프로그램 제작에도 힘을 쏟는다.

KBS 2TV ‘김생민의 영수증’, 케이블 채널 올리브 ‘밤 블레스 유’ 등을 통해 재기발랄한 시선과 탄탄한 기획력을 인정받은 그는 방송가에서 ‘유능한 제작자’로 통한다. 공동편성한 케이블채널 스카이드라마의 김원정 책임프로듀서는 “송은이의 전작들이 모두 성공한 것을 보고 먼저 협업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김 프로듀서는 ‘기획자’ 송은이에 대해 “일상이나 자신의 관심사를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는 센스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제작사의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이끄는 진행 실력”도 방송가가 송은이를 찾는 이유로 꼽았다. 김 프로듀서는 “기획 전반을 이해해 출연진들의 호흡이나 화합 등을 적절하게 끌어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송은이는 자신의 관심사 중 하나인 음악도 콘텐츠로 풀어냈다. 2000년 ‘상상’이라는 곡을 발표하며 가수로도 활동했던 그는 과거의 꿈을 앞세워 걸그룹 셀럽파이브를 결성하고 꾸준히 활동 중이다. 셀럽파이브는 송은이가 개그우먼 김신영, 안영미, 신봉선과 의기투합해 만든 그룹으로, 재미나 화제를 위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세 곡을 발표했다.

신곡 ‘안 본 눈 삽니다’의 뮤직비디오도 그의 작품이다.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나선 그는 1990년대 가요계 걸그룹을 연상시키는 청순 콘셉트로 꾸며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2015년 설립한 영상 콘텐츠 회사인 컨텐츠랩 비보를 통해서도 꾸준히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송은이는 “앞으로 보여줄 것이 많이 남았다”며 기획자로서 행보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타율 1위 양의지 3관왕 야심만만

출루율 0.440·장타율 0.575 1위



양의지

35년 만에 포수 타격왕을 노리는 NC 다이노스 양의지(32)가 출루율과 장타율 부문에서도 눈부신 성적을 내고 있다.

양의지는 17일까지 타율 0.356를 기록해 올 시즌 타격왕 수상이 매우 유력하다. 포수 포지션에서 마지막으로 타격왕이 나온 것은 지난 1984년, 무려 35년 전의 일이다. 당시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었던 이만수가 0.340의 타율로 1위에 오른 바 있다.

포수는 수비 중요성이 강조되는 포지션이다. 이 때문에 공격에서 뚜렷한 지표는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올해 양의지는 공격형 포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더불어 수비에서의 핵심적인 역할까지 잘 수행하는 중이다.

17일 KIA 타이거즈전에서는 상대 ‘에이스’ 양현종을 상대로 1회부터 선제 투런포를 터트리며 최근의 좋은 감각을 과시했다. 시즌 19호포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20홈런 고지를 눈앞에 뒀다. 이 홈런으로 양의지는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0.566)를 제치고 장타율 부문에서 다시 1위에 올랐다. 무려 0.575의 장타율을 기록해 남다른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출루율에서도 1위 행진은 계속된다. 양의지의 올 시즌 출루율은 0.440이다. 2위는 KT 위즈 강백호(0.423). 양의지는 특유의 선구안을 자랑하며 벌써 46볼넷을 기록,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한 시즌 볼넷을 기록했다.

현재 좋은 페이스가 시즌 마지막까지 유지된다면, 타격 타이틀 부문 3관왕도 막연한 꿈이 아니다. 특히 양의지는 올해 프리에이션트(F/A) 최다타자로서 자신의 몫을 독특히 해내고 있는 모습이다. NC 이대웅 감독 역시 “포수가 타격 3개 부문에서 최상위 기록을 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양의지는 지금 최고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 한국 썰매대표팀 드디어 보급자리 생겼다

진천선수촌에 스타트훈련장 오픈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훈련 가능 이용 총감독 “절하고 싶을 만큼 감사”

대한민국 썰매 종목 선수들이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연습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이들에게 ‘실내스타트훈련장’이라는 선물의 가치는 엄청났다. 총복진 천선수촌 다목적체육관에 자리잡은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실내스타트훈련장이 18일 첫선을 보였다.

한국 썰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스켈레톤 황제’ 윤성빈(25·강원도청)이 썰매 종목 최초의 금메달을 안았고, 원운송(34·강원도청)을 비롯한 봅슬레이 4인승 대표팀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이 썰매 강국으로 이름을 알린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후 행보는 아쉬움의 연속이었다. 영광의 발판이 됐던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는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해 폐쇄됐고, 아이스스타트 훈련장도 자연스레 자취를 감췄다.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 이용 총감독이 지난해 윤성빈의 그랜드슬램 달성에 대해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힌 이유도 훈련 시설 부재로 인한 경기력 하락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윤성빈은 세계선수권에서 3위를 차지해 그랜드슬램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악조건 속에서도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스타트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국제대회를 치르면서도 선수들은 수준급의 성적을 냈고, 이는 새 훈련장 건설로 이어졌다. 지난 3월 이 감독은 신치용 진천선수촌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훈련장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신 총장은 대한체육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선수들의 보급자리가 생길 배경이다.

스타트 훈련장은 총 길이 70m, 폭 77cm로 구성됐다. 봅슬레이, 스킨레톤, 루지 선수들의 양방향 훈련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시설로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코스와 최



한국 썰매의 보급자리가 될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실내스타트훈련장이 18일 진천선수촌에서 선을 보였다. 개장식을 맞아 첫 훈련을 하고 있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들. 진천 | 뉴시스

대한 흡사하게 만들었다. 코스 이해도가 뛰어난 한국 선수들의 기량을 고려하면, 스타트의 향상은 세계 상위권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과거 피니시 기록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구간 기록을 4등분으로 나눠 세세한 변화까지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 감독은 “선수들과 지도자로 20년 동안 해외를 다녔지만 이 정도로 좋은 연습장은 처음이다. 앞으로 절하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고, 윤성빈은 “체력 훈련 직후 스타트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즉시 보완할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해 좋은 기록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posterboy@donga.com